



캔슬 컬처(Cancel Culture)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서경주 중재위원(서울제8중재부)

군중

약 60년 전 마셜 맥루한이 <구텐베르크 갤럭시>에서 주장한 매스미디어를 매개로 한 ‘글로벌 빌리지’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등장 이후 더욱 심화하고 강화된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인류는 무작위로 연결되고 있으며 여기에 수많은 알고리즘이 가담하여 초연결(hyperconnectivity) 무한네트워크를 이루는 가운데 이전에 매스미디어의 일방적 수용자에 불과했던 개인이 정보를 생산하고 재전달하는 기능까지 맡는 네트워크 노드(network node)로 격상되었다.

초연결 사회에서 물리적 공간은 집합과 접촉을 위해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요즘 우리가 경험하듯 사회적 거리두기나 비대면처럼 이산과 격리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제는 뜻을 같이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누군가 거리와 광장으로 나가 목청껏 외치지 않아도 된다. 군중들이 네트워크 상에서 저절로 증식하고 힘을 모은다. 엘리아스 카네티(Elias Canetti)가 군중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규정한 ‘성장하려는 욕구’, 즉 더 많은 사람을 특정 목적에 가담시키려는 욕구는 집에 틀어박혀 컴퓨터 앞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고립된 행위로도 충족될 수 있다. 이 ‘신중 열린 군중(die offene Masse)’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한다. 광장의 군중들은 여러 가지 생리적인 요인 때문에 시간이 가면 어쩔 수 없이 해산하지만, 네트워크의 군중들은 쉽게 흩어지지 않는다.

사이버 공간이든 광장이든 군중의 궁극적 목표는 모이는 것 자체에 있지 않다. 경기장이나 공연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군중이 아니다. 그들은 관중이다. 관중들은 벌어지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며 수동적으로 지켜보고 평가할 뿐이다. 간혹 축구장의 홀리건처럼 관중이 군중으로 돌변하기도 하지만 관중들은 보통 자신들이 관찰하는 대상과 객관적 거리를 유지한다. 하지만 군중은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비판하고 기존 질서의 개선과 개혁을 요구하고 때로는 행동으로 나서 무너뜨린다.

초연결시대 우리는 이미 군중, 거대한 군체(群體)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군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처럼 늘 불안정하게 동요하며 다수가 동의하고 지향하는 가치와 규범을 일탈한 자들을 찾아내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매장하려고 한다. 그러한 군중의 위력은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로까지 소급적용된다.

위력

기안84는 인기 웹툰 작가다. 그는 지난 8월 네이버에 연재하는 <복학왕>에서 주인공 봉지은이 '성상납을 암시할 수 있는 묘사를 하여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그러자 그는 배 위에 조개를 올려놓고 깨는 장면을 식탁 위의 대계를 깨는 장면으로 수정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원고작업을 해야했는데 불쾌감을 드려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며 “작품에서의 부적절한 묘사로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작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웹툰협회는 8월 24일 공식 성명을 통해 “작가와 작품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작가 퇴출, 연재 중단 요구는 파시즘”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문제 제기과 비판의 함의는 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통감한다”면서도 “비판과 견해의 도를 넘은 위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웹툰협회의 홈페이지에는 이 성명에 대한 지지와 비난의 글이 폭주하여 이를 넘게 다운되었다. 웹툰협회는 기안84의 만화에 문제를 제기한 네트워크 상의 군중들이 작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력을 행사했다고 본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들은 차고 넘친다.



2018년 12월 5일 미국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이듬해 2월에 열리는 91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의 사회자로 영화배우 케빈 하트(Kevin Hart)를 선정했다. 그는 흑인으로서 세 번째 아카데미상 시상식 사회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그러자 무명시절 그가 했던 발언들이 들춰졌다. 그가 2011년에 “만약 자신의 게이 아들이 인형 놀이를 하면 인형집을 박살내겠다”고 한 것을 비롯한 몇 차례 동성애 혐오발언을 했던 것이 화근이 되었다. 게이(gay)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은 동성애에 대한 경멸적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되지만 10년 전에는 남성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일반적 용어였다. 수많은 신조어가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어휘의 함축적 의미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변하면서 적절했던 용어는 어느새 부적절한 용어가 되어버렸다.

이런 비난에 대해 하트는 처음엔 사과하지 않았다. “나도 나이가 마흔이 다 되었다(그는 1979년생이다).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고 성숙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 과거의 언행에 대해 언제까지라도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얼마 안 가 그는 LGBTQ 단체에 대해 사과하고 아카데미 시상식 사회를 맡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모두가 거대한 군중의 일부로 존재하는 초연결시대에 개인의 과거 언행과 행적은 언제든 다시 들춰지고 거론되며 현재의 가치와 관점에서 재평가된다.



위협

소셜미디어 시대에 언어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비판하는 수단을 넘어 그들을 현실적으로 위협하는 무기가 되었다. 네트워크의 군중들이 이른바 공인의 과거 언행을 비판하고 망신을 주는 것은 품위와 명예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는 업적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경력을 단절시키고 생계수단을 박탈한다. 명망가들에게 네트워크 상의 군중들은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암묵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으로 상존한다. 올해 7월 미국의 권위 있는 월간 문예지인 <하퍼스 매거진>에는 “정의와 열린 토론에 대한 서한”이라는 제목의 글이 투고되었다. 이 서한은 10월 호에 게재될 예정이지만 인터넷에 미리 공개되었다. 언론인, 작가, 시민운동가 등 저명인사 161명 명의로 작성 공개된 서한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작가 J. K. 롤링, 여성 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Gloria Steinem), CNN의 시사프로그램 GPS의 진행자 파리드 자카리아(Fareed Zakaria)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도 들어 있다. 성명서 형태의 이 공개서한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이 비무장 상태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담은 비디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확산하면서 2014년 백인 경찰이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흑인을 죽인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가 시들해진 #Black lives matter 운동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 운동은 과거 노예제도를 둘러싼 역사논쟁으로 변저, 미국의 역사적 인물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비판을 받고 그들의 동상이나 기념비가 끌어내려지거나 낙서로 얼룩졌다. 하퍼스 매거진의 공개서한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간추려 번역해 본다.¹⁾

인종적, 사회적 정의를 요구하는 강력한 저항은 대학과 언론 그리고 인도주의 단체들과 예술 분야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서 더 폭넓은 평등과 포용, 아울러 만시지탄의 경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불가결한 적폐 청산은 서로 다른 이념적 성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포용하는 규범을 저해하는 일련의 새로운 도덕적 태도와 정치적 입장을 강화해 왔다. 우리는 인종적, 사회적 정의를 요구하는 저항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열린 토론과 견해차에 대한 관용의 원칙을 약화시키려는 것은 소리높여 반대한다. (중략) 우리가 원하는 민주적 포용은 모든 분야에서 편협한 풍토에 대해 목소리를 낼 때만 성취될 수 있다. 자유주의 사회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정보와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은 나날이 위축되고 있다. 극우만 그럴 줄 알았는데 이번 분위기가 우리 문화 전반에 더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반대의견에 대한 불관용, 공개적 망신 주기와 따돌림의 유행

1) HARPER'S MAGAZINE (2020. 7. 7), A Letter on Justice and Open Debate, URL: <https://harpers.org/a-letter-on-justice-and-open-debate/>

그리고 복잡한 정치적 문제를 편향적 확신으로 풀어가려는 경향이 그것이다. 우리는 누구든 기탄없이 제기되는 정당한 반론의 가치를 존중한다. 그러나 말과 생각이 거슬린다고 생각되면 즉각적이고 혹독한 응징을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도자들이 깊게 생각하여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미칠 피해를 관리하는데 급급해 과도한 처벌을 남발한다. …… 작가, 예술가, 언론인들이 위협을 느껴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지 않으려는 것으로 우리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들은 소수의견을 내거나, 특히 동의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직업적 생존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위협을 받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타파하는 길은 그것을 그대로 알리면서 논쟁하고 설득하는 것이지 침묵을 강요하거나 묵살하는 것이 아니다. 정의와 자유는 한 짝을 이룰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기만을 거부한다. 우리는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위험을 무릅쓰며, 심지어는 실수를 용인하는 문화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우리 직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보지 않고 부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논란

이 공개서한은 미국에서 논란이 되는 ‘캔슬 컬처(cancel culture)’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였다. 캔슬 컬처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아직 생소한 용어다. 메리엄 웹스터 사전이나 옥스퍼드 사전에도 올라와 있지 않다. 웹스터 사전은 “어떤 인물에 대한 지지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잠정 정의하고 “이 용어의 용례를 살피고 있으며 사용 빈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어휘 사전 등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이 용어에 대한 사전적 정의와 관계없이 미국의 주류 언론을 비롯한 많은 매체가 최근 들어 부쩍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말로로는 ‘사회적 약자들이 집단의 위력으로 자신들의 가치와 이념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한 유명인사나 공적 인물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망신시켜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과 그것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포함하는 의미’ 정도로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Me Too는 페미니즘운동 차원에서 캔슬 컬처의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캔슬 컬처가 확산하면서 캔슬 컬처를 둘러싼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앞서 하퍼스 매거진의 공개서한처럼 캔슬 컬처가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한번 실수하거나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낙인을 찍고 편을 갈라 배제하기 때문에 실수를 통해 경험적으로 배울 기회를 원천 봉쇄해 버린다는 우려도 있다. 또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현재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평지풍파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시간의 인과율을 무시한 근본



주의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에 그 동안 공개적인 발언이나 정책 입안 그리고 제도권 진입에서 기회를 박탈당하고 정치적으로 과소대표 된 약자들에게 캔슬 컬처가 발언권에 힘을 실어주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또한 캔슬 컬처가 성별, 인종, 계층, 지역 등에 따른 불평등과 차별 같이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불의에 대한 도덕적 각성제로 작용한다는 주장도 있다. 어느 쪽이 됐든 캔슬 컬처가 또 다른 극단으로 흐른다면 그것 역시 캔슬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캔슬 컬처의 위협은 기우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미디어는 소통의 방식을 결정하며 그것은 권력 관계를 내포한다. 인쇄술의 발명이 권력 관계의 변화를 가져왔듯이 매체의 변화는 체제의 변화를 의미한다.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나타난 캔슬 컬처는 문화적, 정치적 함의를 갖는 문화 현상이다. 그리고 “과거에 맞았던 것들이 지금은 틀리고 과거에 통했던 것들이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는 관점은 역사의 진보를 추동한다. 우리 각자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선에 어긋나는 언행에 대해 캔슬할 의무를 지고 있다. 언론자유는 강요나 위협을 받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불의와 부조리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발언해야 할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이다. 🗣️